1. 현정이는 왜 그 때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을까.

친밀한 사람의 말은 색다르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의중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일 선물을 주니까 투덜대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화나지 않는다. 부끄러워서 더 까칠하게 군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친구와 나는 현재의 말 뿐만 아니라 과거도 데려와 대화한다. 이런 사적 언어는 더욱 풍부한 함의를 지닌다.

많은 접촉이, 두 사람의 말이 지닌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 마침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이 말로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읽지매 친구들도 서로의 표정을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파악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한 세월은 서로를 더욱 잘 파악하게 해준다.

친밀한 친구를 잃는 건 두렵다. 그건 오직 두 사람만 사용하던 소수 언어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나의 유머에 웃던 그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고, 내 유머는 사그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잃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다툼을 회피한다.

하지만 ‘간섭’도 없고 ‘사소한 언쟁’도 할 수 없는 언어는 웬 사치품인가. 언어는 사회적 의례를 수행하는 도구 이전에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이다. 겉을 장식으로 발라도 아무것도 담지 못하면 그릇이라 부를 수 없다. 갈등과 반목을 감내하며 언어로서 가치를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 십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도 몇 가지 언어만 간직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 각 언어에 대한 전문성은 약해진다. 풍부하고 사색적으로 말을 하면 몇 가지 언어만 사용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몇 가지 편안한 언어를 다루길 선택한다. 그런 까닭에 어른이 될수록 단지 몇 명만 나와 ‘오직 두 사람’이 된다.

우리는 흔히 ‘언어는 살아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사멸언어와 생존언어의 수를 비교하면 ‘언어는 죽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떠나왔고 쉽게 잊었기 때문이다. 일상을 살다가 불현듯 느껴지는 허무함이 그런 망각, 오래 전에 잊어서 글자로 형상할 수도 없는 언어가 느껴졌기 때문은 아닐까.

기타 : 언어 = 개성 일지도 모른다.